

기고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 아파트 화재 더 이상의 인명피해 방지

5.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역할 구분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기능에 따른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공동주택의 세대 내부 및 외부 공용공간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및 거주자에게 신속히 화재 사실을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계단 등 피난통로가 연기로 오염되었을 경우 비상방송을 통해 거주자가 적절한 대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하며, 이에 대해 소방관서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지도가 필요하다.

반면,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아파트 세대별 방화구획 건축구조상 세대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발화세대에서만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세대 각실마다 내부에 직접 설치되어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경보 한계는 발신기가 세대 외부에 설치되며 세대 외부인인 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해 관리되므로, 경보음의 음량 부족이나 설비 고장 등의 사유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대내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별도로 설치함으로써, 거주자가 화재 발생 사실을 신속히 인지하고 대피나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 앞서 언급한 안타까운 인명피해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건물 전체에 설치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해 유지·관리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며, 세대 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파트 세대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구조적 특성상 인접 세대 주민들의 즉각적인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특히 모든 가족이 잠든 새벽 시간대에는 초기 경보가 생명 보호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신속한 경보 기능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수단이 된다.

보성소방서에서는 앞으로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하는 건축 아파트는 물론 신축 아파트에도 의무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거실 등에 연기감지기에 의해 화재를 감지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유지관리의 한계가 있기에 세대 내에는 거주자가 관리 가능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 거주자의 신속한 화재발생 사실 인지와 대처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시각기능이 추가된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 가능한 단독경보형감지기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설치할 경우 세대 내 어느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거실과 각 방에 동시에 경보음을 울릴 수 있다.

가격이 저렴해 비용적으로 부담 없고 신뢰성 높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 화재로부터 더욱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길 바란다.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김선규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 이송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춘 편집국장 박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525-9775 <팩스> (062)528-4566

회장실 (내선)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3,000원 · 147/00원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오늘날의 세태를 그대로 말해주는 듯하다

패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월 앞에서는. 때문에 자신이 하나를 선택했다면 다른 하나는 남이 갖도록 놔둬야 한다. 아무리 아쉽더라도. 사실 자신이 선택한 것도 온전하게 자신의 것이 되기는 쉽지 않다.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그 선택에 대해 자신을 온전히 내던지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세상이란 그렇다.

아무리 수많은 노력을 해도 해결점을 찾기는 어렵다. 때문에 이 시대를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영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진정한 이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영이 맑으면 눈이 맑아져 잘 보게 되어 있다.

부모 앞에서는 누구나 어린아이가 된다.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많은 것을 가져도 말이다. 때문에 오늘날처럼 고도로 문명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맑을 영을 갖고 싶어 한다. 그래서 영성에 심취하려고 노력한다. 영성신학, 영성철학 등의 단어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것도 그 이유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정신을 구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신을 스스로 조율하지 못하게 되면 정신과 질환을 앓게 되고 이는 곧 삶의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영이 흐려지는 것이다. 문제는 두려워하면서도 영을 더럽히는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참으

로 역설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종교가 필요하다고 본다. 때문에 어떤 종교든 사교가 아니라면 가져보길 바란다.

물론 종교를 전파하는 목회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많았는가.

묵묵히 수행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제도하려고 노력하는 목회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또한 교리 그 자체도 좋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믿으면 된다. 그러다보면 영이 맑아져 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정치권이, 각종 이익단체들이 싸우고 있다. 생전에 얼굴 자체를 맞대하지 않을 듯이. 그러면서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자신이 속한 회원들을 위한다고 말한다. 참으로 나세다. 겉다르고 속 다르다.

성서의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사이여! 먼저 잔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마태복음 23장 25절-26절)는 오늘날의 세태를 그대로 말해주는 듯하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예상치 못한 사고나 갑작스러운 질병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생사의 갈림길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골든타임(Golden Time)'입니다. 골든타임은 환자가 생명을 유지하거나 장애 없이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의미하며, 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현장응급처치입니다.

생명 지키는 골든타임, 현장응급처치의 중요성 아시나요?

현장응급처치는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까지 일반 시민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응급조치를 뜻합니다. 심정지 환자에게 실시하는 심폐소생술(CPR), 기도 폐쇄 시 하임리히법, 출혈 환자의 지혈 처치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응급처치를 받은 환자는 그렇지 못한 환자에 비해 생존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며, 후유증 또한 줄어듭니다. 특히 심정지의 경우, 45분 이내에 심폐

소생술이 이뤄지지 않으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10분이 지나면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은 평균 710분. 결국 가장 먼저 현장에 있는 시민의 행동이 환자의 생명을 결정짓는 셈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심폐소생협회는 공동으로 '생명을 잇는 첫 손길' 캠페인을 통해 전 국민의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

니다. 초·중·고교생부터 직장인, 고령층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손쉽게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누군가 하겠지'라는 수동적인 태도로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현장응급처치는 의사가 아닌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기본적인 시민의 의무입니다. 현장응급처치, 우리가 함께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강진소방서 선전19안전센터장 소방경 임찬호

오늘의 운세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음력 6월 17일)

Grid of 12 zodiac signs with their respective daily forecasts. Each sign includes a small icon and a brief text description of their luck for the day.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